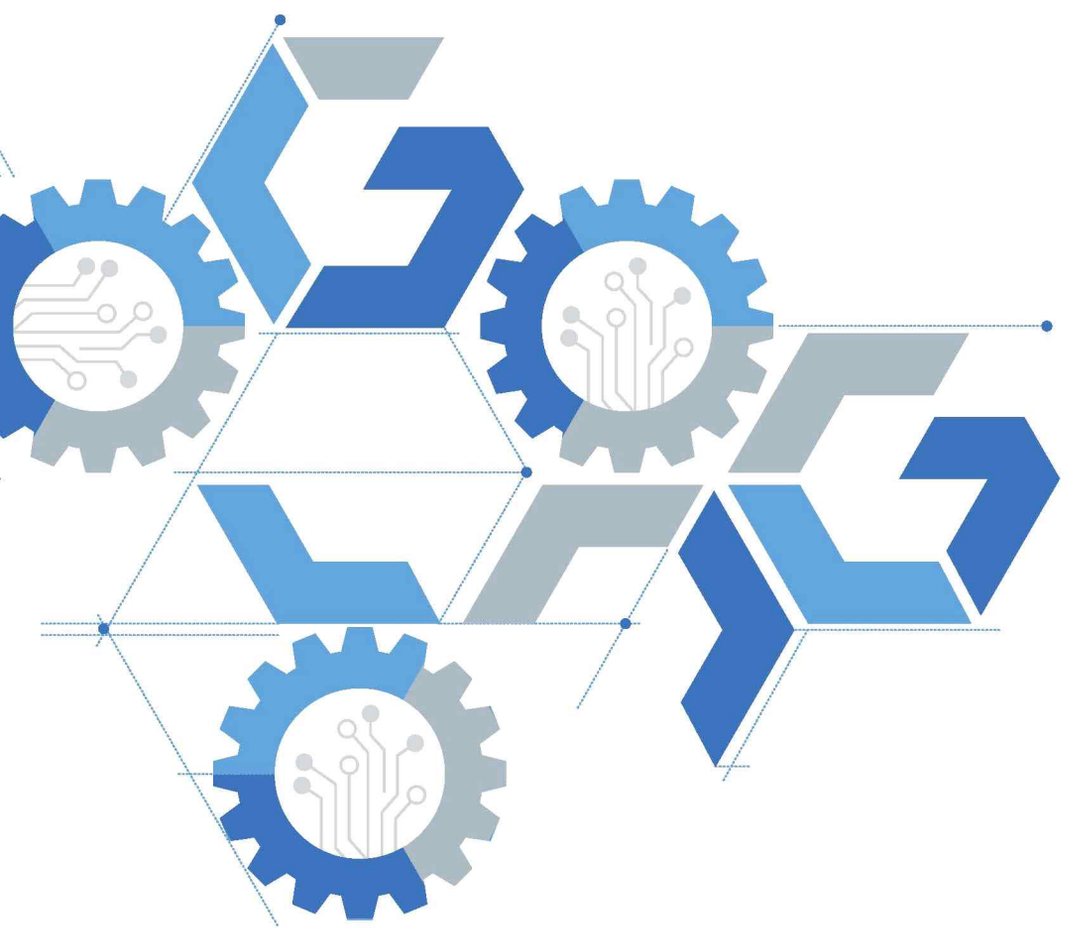
GURO 경제 브리프

제 1호

G밸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및 근무환경 변화

- G밸리 제조업 BSI(Business Survey Index)
- 코로나19에 따른 G밸리 기업환경 변화 조사
- G밸리 제조기업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조사



구로구

GURO 경제 브리프는 G밸리 기업의 경기 동향과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로구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GURO 경제 브리프 제1호

G밸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및 근무환경 변화

발행인 구로구청장

발행처 구로구 구정연구반

08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ISBN 979-11-91267-00-6 93320 비매품

발행일 2021년 1월 29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구로구청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GURO 경제 브리프
제1호

G밸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및 근무환경 변화

김 준 책임연구원
02-860-2218
junkim@guro.go.kr

	요약	1
Ⅰ	G밸리 제조업 BSI(Business Survey Index)	3
Ⅱ	코로나19에 따른 G밸리 기업환경 변화 조사	9
Ⅲ	G밸리 제조기업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조사	19

요약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여개를 대상으로 경기흐름을 판단하는 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3/4분기 업황 현황BSI가 전분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방역 완화와 내수 지원정책에 힘입어 4/4분기 업황 전망이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G밸리 제조기업의 매출·영업이익과 같은 경영성과는 위축되었으나 대다수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근무시행이 대안으로 나타났으나 G밸리 내 중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유인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으로 이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G밸리 3/4분기 업황 현황BSI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 4/4분기 업황 전망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상승

G밸리 제조업 3/4분기 업황 현황BSI는 3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분기(38) 대비 1p 하락한 수치이며, 이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신규수주 감소와 매출규모 축소로 인해 3/4분기 상승의 상당 부분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4/4분기 업황 전망은 지난 3/4분기 전망(37)보다 3p 증가하여 40을 기록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과 4/4분기는 코로나19 방역 1단계로 완화 반영과 더불어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활력 패키지 기대감으로 인해 전체적인 업황 및 내수판매, 가동률, 인력사정 등 전분기 비해 다소 개선된 전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G밸리 제조기업 경영성과는 위축된 반면에 대다수 기업이 고용은 유지

코로나19로 인해 G밸리 제조기업은 대다수는 체감경기가 이전보다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은 매출(-53.0%)과 영업이익(-54.6%)이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부문에서는 G밸리 제조기업 63.4%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산업변화 흐름과 동조하기 위해서는 G밸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이 필요하며 더불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과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민관이 협력해 준비한다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G밸리 기업 곳곳으로 스며들 것이 자명할 것이다.

G밸리 제조기업은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나 비대면(Untact) 근무를 실제 시행한 기업은 저조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79.5%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 응답했지

만, 재택근무, 원격근무, 원격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시행한 기업은 2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근무의 업무효율(생산성)은 대면근무와 비슷하다는 평가(39.1%)가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밸리 내 중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유인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Ⅰ. G밸리 제조업 BSI(Business Survey Index)

G밸리 BSI 3/4분기 현황과 4/4분기 전망

G밸리 3/4분기 업황 현황BSI은 37로 전분기에 비해 1p 하락하였으며, 4/4분기 업황 전망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3p 상승

G밸리 제조기업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3/4분기 업황 현황은 37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38) 대비 1p 하락한 수치로 여전히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신규수주 감소와 매출규모 축소로 인해 3/4분기 상승의 상당 부분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4/4분기 업황 전망은 지난 3/4분기 전망(37)보다 3p 증가하여 40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회복과 4/4분기는 코로나19 방역 1단계로 완화 반영과 더불어 정부의 소비쿠폰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내수 활력 패키지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업황 및 내수판매, 가동률, 인력사정 등 전분기 비해 다소 개선된 전망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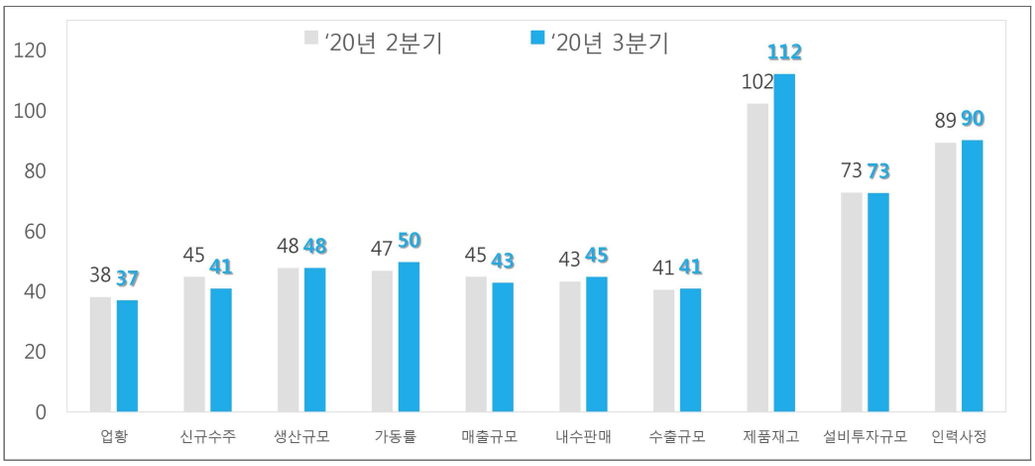
> **BSI(Business Survey Index)**[1]는 기업이 느끼는 개별기업의 업황 등을 지수화하여 전체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는 지표
> **업황**은 생산, 매출 등의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이며 산업계에서 “영업현황”, “영업상황” 등의 의미로 통용(한국은행)

[표 1] G밸리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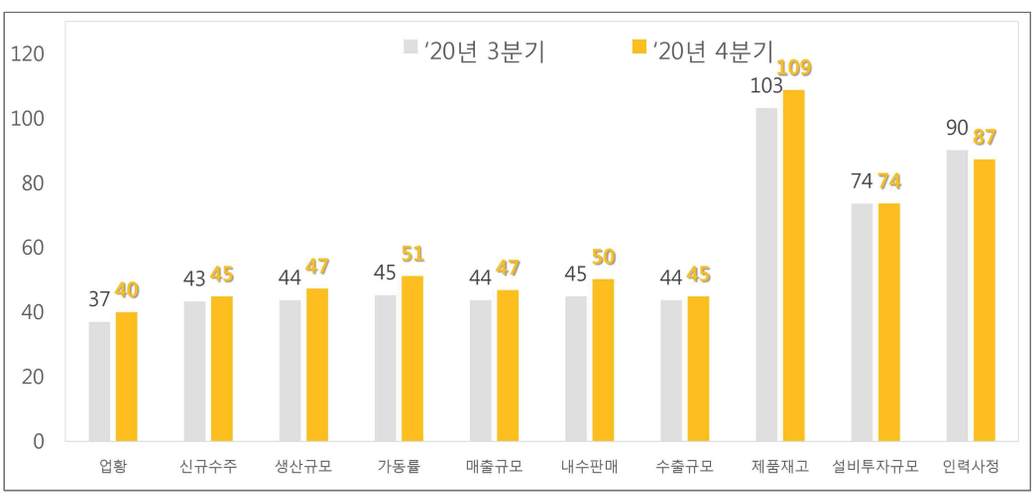
	현황BSI			전망BSI		
	2020년 2/4분기	2020년 3/4분기	전기비	2020년 3/4분기	2020년 4/4분기	전기비
업황	38	37	(-1)	37	40	(+3)

1) BSI는 0~200의 값을 가지는데,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즉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그림 1] G밸리 현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 3/4분기(주요항목)



[그림 2] G밸리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 4/4분기(주요항목)



[표 2] G밸리 업황 및 주요항목별 BSI(기업경기실사지수)

	현황BSI			전망BSI		
	2020년 2/4분기	2020년 3/4분기	전기비	2020년 3/4분기	2020년 4/4분기	전기비
업황	**38**	**37**	**(-1)**	**37**	**40**	**(+3)**
신규수주	45	41	(-4)	43	45	(+2)
생산규모	48	48	(-)	44	47	(+3)
가동률	47	50	(+3)	45	51	(+6)
매출규모	45	43	(-2)	44	47	(+3)
내수판매	43	45	(+2)	44	50	(+5)
수출규모	41	41	(-)	44	45	(+1)
제품재고*	102	112	(+10)	103	109	(+6)
설비투자규모	73	73	(-)	74	74	(-)
인력사정*	89	90	(+1)	90	87	(-3)

주 : 제품제고와 인력사정은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G밸리 4/4분기 전망BSI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전망치 다소 개선, 수출기업 전망은 대폭 개선된 반면 내수기업은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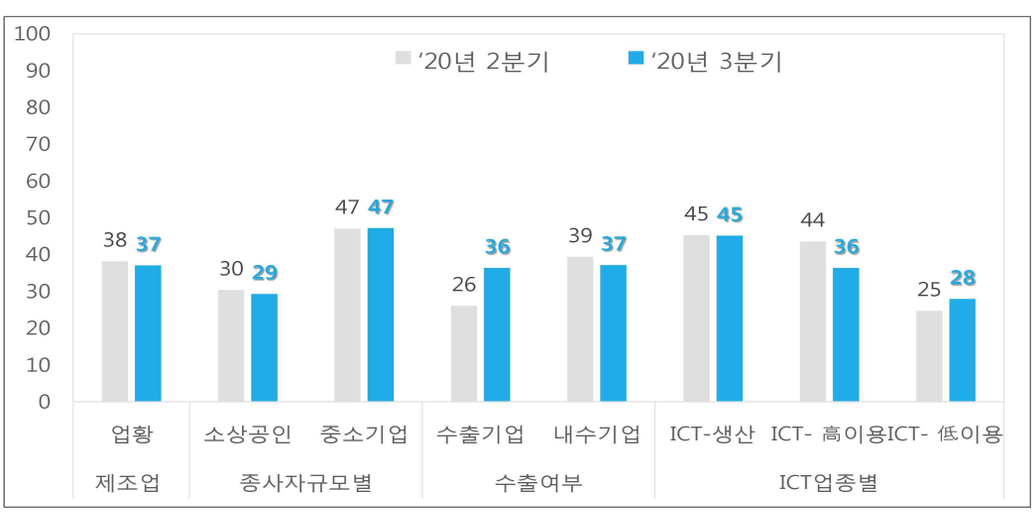
G밸리 제조기업 종사자규모별 3/4분기 업황 현황BSI는 소상공인의 경우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29를 기록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전분기 대비 보합(47)을 보였다.

규모별 업황 전망은 소상공인(28→31), 중소기업(47→52) 모두 4/4분기 전망치가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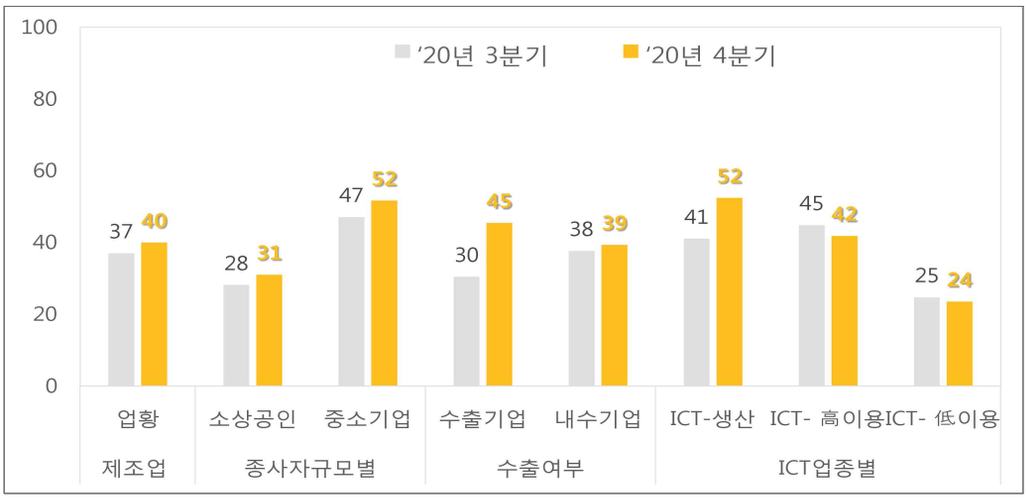
수출여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전분기 대비 10p 상승한 36을 기록하였고, 내수기업은 2p 감소한 37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하는 경기가 상이하며 3/4분기에 수출이 다소 회복 되는데 비해 내수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실적결과는 전망지수에 반영되어 수출기업은 전분기 대비 15p 증가한 45을 기록한 반면, 내수기업은 전분기 대비 1p 증가에 그치는 39로 나타났다.

ICT활용도에 따른 산업의 3/4분기 업황은 ICT-생산 제조업과 ICT-低이용 제조업의 경우 전분기 대비 보합(45)이거나 소폭 증가(28)한 반면에 ICT-高이용 제조업은 전분기 대비 감소(36)하였다. 전망으로는 ICT-高이용 제조업(-3p)과 ICT-低이용 제조업(-1p)이 전분기 대비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ICT-생산 제조업(+11p)만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ICT-생산 제조업만 전망이 상승하는 것은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발생과 대다수 수출기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 G밸리 현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 3/4분기(규모별·수출여부·ICT업종별)



[그림 4] G밸리 전망BSI(기업경기실사지수) 4/4분기(규모별·수출여부·ICT업종별)



[표 3] G밸리 업황 규모별·수출여부·ICT업종별 BSI(기업경기실사지수)

		현황BSI			전망BSI		
		2020년 2/4분기	2020년 3/4분기	전기비	2020년 3/4분기	2020년 4/4분기	전기비
업황		**38**	**37**	**(-1)**	**37**	**40**	**(+3)**
종사자규모별	소상공인	30	29	(-1)	28	31	(+3)
	중소기업	47	47	(-)	47	52	(+5)
수출여부	수출기업	26	36	(-)	30	45	(+15)
	내수기업	39	37	(-2)	38	39	(+1)
ICT업종별	ICT-생산 제조업	45	45	(-)	41	52	(+11)
	ICT-高이용 제조업	44	36	(-8)	45	42	(-3)
	ICT-低이용 제조업	25	28	(-)	25	24	(-1)

주 : 수출기업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은 50% 미만인 업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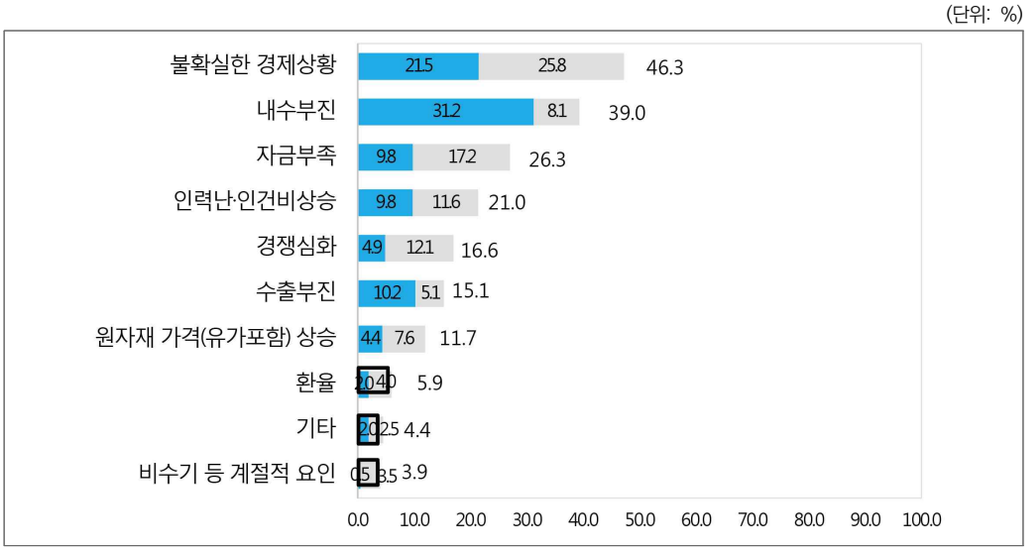
G밸리 제조기업의 경영애로

G밸리 3/4분기 주요 경영애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이며 “내수부진”, “자금부족”이 그 뒤를 이음

G밸리 제조기업의 경영애로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1순위 및 2순위를 합계한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내수부진이 39.0%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경영애로로는 자금부족(21.0%), 인력난·인건비 상승(19.3%), 경쟁심화(16.6%), 수출부진(15.1%) 등으로 조사되어 G밸리 제조기업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경기와 경영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G밸리 제조기업의 경영애로(1순위 및 2순위 합계)

(단위: %)



[표 4] G밸리 제조기업의 경영애로(1순위 및 2순위 합계)

(단위: %)

	합 계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불확실한 경제상황	46.3	21.5	25.8
내수부진	39.0	31.2	8.1
자금부족	26.3	9.8	17.2
인력난·인건비상승	21.0	9.8	11.6
경쟁심화	16.6	4.9	12.1
수출부진	15.1	10.2	5.1
원자재 가격(유가포함) 상승	11.7	4.4	7.6
환율	5.9	2.0	4.0
기타	4.4	2.0	2.5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3.9	0.5	3.5

〈G밸리 BSI(Business Survey Index)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0. 9. 8 ~ 10. 30 (3/4분기)
  * 2020. 4. 21~ 5. 13 (2/4분기)
◦ 조사대상 :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회수율 18.6%, 205개사 응답)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조사원의 대면조사 병행

※ $BSI = \frac{(\text{긍정 응답 기업 수} - \text{부정 응답 기업 수})}{\text{전체 응답 기업 수}} \times 100 + 100$

  * BSI가 기준치 100 보다 높을 경우 긍정 응답 기업 수가 부정 응답 기업 수 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보다 낮을 경우 그 반대를 의미

〈ICT활용에 따른 제조산업 구분〉

구분	산업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ICT-생산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ICT-高이용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CT-低이용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사리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제조 제조업
	기타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 제조업

주: 제조업 ICT활용도에 따른 분류 기준은 한국은행(2000), 미국 상무부(2000,2003), Pyo, Jeon, and Lee(2015), 이명수·남수중(2019)을 따름

II. 코로나19에 따른 G밸리 기업환경 변화 조사

코로나19 이후 G밸리 제조기업 경영실태 변화

코로나19 이후 G밸리 기업경영 위축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공급망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어 발생된 수요·공급 충격이 지역경제 위축과 지역 내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G밸리 제조기업들의 코로나19 이후 기업체감과 정부지원 정책수요 등의 조사결과[2]를 토대로 G밸리 중소제조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행정의 기반자료 마련과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G밸리 기업의 체감경기는 위축,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어려움이 가중

G밸리 1단지 제조기업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현재 기업경기 체감 심리가 위축되었다 응답한 기업이 87.8%(매우어려움 39.5%, 어려움 48.3%)달해, 코로나19로 인해 G밸리 기업들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의 경기 위축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3.1%에 달하지만 규모가 더 작은 소상공인[3]의 경우에는 91.4%가 체감경기가 보다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회수율 18.6%, 20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업종별, 규모별 층화 후 온라인 및 대면 조사 실시(2020. 9. 8~10. 30)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거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표 5] 코로나19발발 이전 대비 기업체감 경기

(단위: %)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이전과 비슷	다소 호전	매우 호전
전체		39.5	48.3	10.2	2.0	-
기업 규모	소상 공인	47.4	44.0	8.6	0.0	-
	중소 기업	29.2	53.9	12.4	4.5	-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G밸리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절반이상 감소한 반면 고용은 대다수 유지

매출과 영업이익 항목은 코로나 발발 이전 대비 각각 53.0%, 5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영향이 G밸리 제조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61.9%)와 영업이익 감소(62.0%)가 중소기업의 매출감소(-42.7%)와 영업이익 감소(-44.8%)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코로나19발발 이전 대비 매출액 변화

(단위: %)

		감 소					변화 없음	증가				
		100% 이상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25%이상 ~ 50%미만	25% 미만		25% 미만	725%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 이상
전체		2.0	2.0	13.2	18.0	18.5	24.9	13.7	1.5	2.0	1.5	2.9
기업 규모	소상 공인	3.4	3.4	19.8	17.2	18.1	20.7	9.5	0.9	1.7	1.7	3.4
	중소 기업	0.0	0.0	4.5	19.1	19.1	30.3	19.1	2.2	2.2	1.1	2.2

[표 7] 코로나19발발 이전 대비 영업이익 변화

(단위: %)

		감 소					변화 없음	증가				
		100% 이상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25%이상 ~ 50%미만	25% 미만		25% 미만	725%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 이상
전체		2.9	1.5	13.2	14.1	22.9	27.3	14.1	1.0	1.0	1.0	1.0
기업 규모	소상 공인	3.4	1.7	18.1	17.2	21.6	25.0	6.9	1.7	1.7	0.9	1.7
	중소 기업	2.2	1.1	6.7	10.1	24.7	30.3	23.6	0.0	0.0	1.1	0.0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은 고용인원 및 자기자본은 현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유지가 코로나19이전과 변화 없음이 63.4%로 코로나19이전 보다 고용이 감소한 18.1% 응답을 상회하여 G밸리 제조기업의 고용이 다른 성장, 수익지표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코로나19발발 이전 대비 종사자 변화

(단위: %)

		감 소					변화 없음	증가				
		100% 이상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25%이상 ~ 50%미만	25% 미만		25% 미만	725%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 이상
전체		0.5	1.0	2.9	4.4	9.3	63.4	15.6	0.5	2.0	0.5	1.0
기업 규모	소상 공인	0.9	1.7	4.3	4.3	9.5	67.2	8.6	0.9	2.6	0.0	1.7
	중소 기업	0.0	0.0	1.1	4.5	9.0	58.4	24.7	0.0	1.1	1.1	0.0

[표 9] 코로나19발발 이전 대비 자기자본 변화

(단위: %)

		감 소					변화 없음	증가				
		100% 이상	75%이상 ~ 100%미만	50%이상 ~ 75%미만	25%이상 ~ 50%미만	25% 미만		25% 미만	725%이상 ~ 50%미만	50%이상~ 75%미만	75%이상 ~ 100%미만	100% 이상
전체		0.5	-	6.8	8.3	8.3	64.4	7.3	0.5	2.4	0.5	1.0
기업 규모	소상 공인	0.9	-	9.5	10.3	12.1	56.0	6.0	0.9	2.6	0.9	0.9
	중소 기업	0.0	-	3.4	5.6	3.4	75.3	9.0	0.0	2.2	0.0	1.1

신규인력 채용계획은 거의 없으며, 이는 경기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어 채용시장은 어려움 예상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은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없으며,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인력채용 시장이 더욱 경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신규인력 채용 계획

(단위: %)

		있음	없음
전체		29.3	70.7
기업 규모	소상 공인	19.8	80.2
	중소 기업	41.6	58.4

(단위: %)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1~2명)만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채용계획 인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력만을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부문의 인력 채용계획을 가진 반면 소상공인의 경우 운영인력관련 채용계획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채용 계획 인력(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단위: %)

		채용 계획 인원 수				
		1명	2명	4명	5명	10명
전체		40.0	38.3	10.0	3.3	6.7
기업규모	소상 공인	65.2	30.4	0.0	0.0	4.3
	중소 기업	24.3	43.2	16.2	5.4	8.1

주: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60개사를 대상

신규채용 계획이 없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경기전망 불확실성(32.4%), 뒤를 이어 경영악화 또는 사업축소(29.0%), 인건비 부담(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과 기업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채용시장을 경색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채용 계획이 없는 주요 요인(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기업)

(단위: %)

		경기전망 불확실성	경영악화 또는 사업축소	인건비 부담	인력아웃 소싱	기타
전체		32.4	29.0	26.9	3.4	8.3
기업규모	소상공인	24.7	30.1	33.3	5.4	6.5
	중소기업	46.2	26.9	15.4	0.0	11.5

주: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145개사를 대상

G밸리 제조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대응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R&D활동 강화,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을 통해 자구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지원정책으로는 금융세제지원, 내수소비활성화를 꼽음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한 마련 여부를 살펴보면, 대응여력 부족(45.4%)과 대응책 추진 및 준비 중(54.6%)이 비슷한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 중(10.7%)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의 경우 대응여력부족(51.7%)이 대응책 마련 중(37.1%)이거나 대응 책 추진 중(11.2%)보다 우세하였으며, 중소기업은 대응책 마련 중(52.8%)로 나타나 규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응 여부가 상이하였다.

[표 13]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대응책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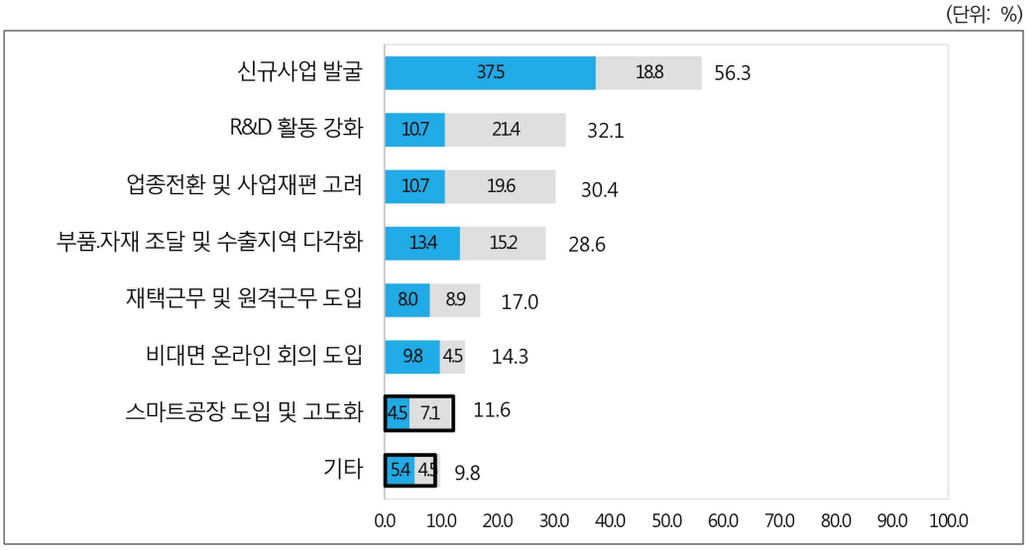
(단위: %)

		대응여력부족	대응책 마련 중	대응책 마련해 추진 중
전체		45.4	43.9	10.7
기업규모	소상공인	51.7	37.1	11.2
	중소기업	37.1	52.8	10.1

G밸리 제조기업이 코로나19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적인 방안으로 신규사업 발굴(56.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R&D활동 강화(32.1%),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30.4%), 부품자재 도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28.6%)등 자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주로 준비하는 대응책이었다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도입(17.0%),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입(14.3%),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11.6%) 등은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대비, 즉 비대면 산업부상 대응과 비대면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내부 대응정책(1순위 및 2순위 합계)

(단위: %)



[표 14]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내부 대응정책

(단위: %)

	합 계		
		1순위 응답	2순위 응답
신규사업 발굴	56.3	37.5	18.8
R&D 활동 강화	32.1	10.7	21.4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	30.4	10.7	1.6
부품자재 도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	28.6	13.4	15.2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도입	17.0	8.0	8.9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입	14.3	9.8	4.5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11.6	4.5	7.1
기타	9.8	5.4	4.5

주: 코로나19 이후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마련 중인 112개 응답기업 대상

G밸리 제조기업의 규모별 코로나19 대응책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이나 R&D활동 강화는 비슷하게 고려하고 있으나,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의 경우 소상공인(44.6%)이 중소기업(16.1%)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매출 등에 민감하고 업종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기업규모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기존 경제위기와 다른 새로운 대응 방안인 비대면 관련 부분인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도입과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입을 하는 방안이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23.2%, 17.9%인 반면 소상공인은 각각 10.7% 응답하여 비대면 관련 방안의 경우 중소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내부 규모별 대응정책

(단위: %)

	전체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사업 발굴	56.3	58.9	53.6
R&D 활동 강화	32.1	33.9	30.4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	30.4	44.6	16.1
부품자재 도달 및 수출지역 다각화	28.6	23.2	33.9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도입	17.0	10.7	23.2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입	14.3	10.7	17.9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11.6	8.9	14.3
기타	9.8	8.9	10.7

주1: 코로나19 이후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마련 중인 112개 응답기업 대상
주2: 응답 1순위 및 2순위 합계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금융·세재지원(56.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51.2%), 고용유지·안정지원(47.3%)가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소상고인은 금융·세재지원(62.1%)을 가장 우선지원 정책으로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안정지원(56.2%)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단위: %)

	전체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56.1	62.1	48.3
내수·소비 활성화	51.2	53.4	48.3
고용유지·안정지원	47.3	40.5	56.2
투자활성화	30.2	34.5	24.7
수출·해외 마케팅 지원	14.6	16.4	12.4
기타	1.5	2.6	0.0

주1: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주2: 복수응답

금융·세재지원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관련(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특별자금지원)과 보증관련(특례보증 프로그램, 우대보증 프로그램), 세금관련(국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연장, 징수 집행 유예,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연장 등)지원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세제지원 규모 확대, 납부유예 연장을 보다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G밸리 기업 곳곳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금융 및 R&D지원, 그리고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지원 필요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국면에서 예상되는 장기 불황에 대응하고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 긴급히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하였으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디지털뉴딜의 목표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그린 뉴딜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거대한 물줄기가 사각지대 없이 G밸리 기업 곳곳으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병행 되어야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59.0%)이었으며, 이어서 기업에 대한 금융 및 R&D 지원강화(56.6%),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지원(28.3%)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

(단위: %)

	전체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	59.0	58.6	59.6
기업에 대한 금융 및 R&D 지원 강화	56.6	55.2	58.4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지원 (원격 및 재택근무 등)	28.3	28.4	28.1
공정경쟁 제도화	24.4	31.0	15.7
신기술(AI, 빅데이터) 격차 축소를 위한 기술 지원	16.6	13.8	20.2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13.7	17.2	9.0
기타	2.9	2.6	3.4

주1: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주2: 복수응답

시사점

G밸리 기업경영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비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경제위기(외환위기, 글로금융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촉발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생산과 수요의 위축으로 실물경제에서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G밸리 제조기업은 대다수는 체감경기가 이전보다 위축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코로나19 이후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은 매출(-53.0%)과 영업이익(-54.6%)이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부문에서는 대다수 G밸리 제조기업 63.4%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의 고용유지·안정 지원 정책의 시행(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원금을 지원)과 더불어 구로구만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사업(유급휴직자 고용유지사업주 부담금 지원)이 고용안전망을 견고히 하는데 일정부문 기여하는 걸로 유추가 가능하다.

◦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비교

구 분	고용노동부	서울시
신청자	노사합의 후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 또는 사업주 신청
무급휴직일	30일 이상	5일 이상
재고량	50%이상 증가	해당 없음
매출액 및 생산액	30%이상 감소	해당 없음
무급휴직자수	10명 이상	해당 없음
사전고용유지조치	무급휴직전 1년이내 3개월이상	해당 없음

◦ "해고 없는 도시, 구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업장의 노동자가 유급휴직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사업이며, 543개 기업, 2,79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코로나19에도 지역 고용안정망 구축기여('20.5~10월 기준)

코로나19라는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해 G밸리 제조기업은 절반 이상이 자구책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으며,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사업 발굴(56.3%), R&D활동 강화(32.1%), 업종전환 및 사업재편 고려(30.4%)등이며 이러한 대응 방안은 금융위기와 같은 이전에 겪은 경제위기에도 기업들이 지속성장과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공통적인 대응책이었다면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도입(17.0%),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입(14.3%),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11.6%)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로의 이양을 촉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구적인 노력도 기업규모에 따라 다소 상이하여 소상공인(대응여력 부족 51.7%)이 중소기업(대응여력 부족 37.1%)보다 상대적으로 대응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내부적인 대응과 더불어 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정책으로는 금융지원[4] 규모 확대 및 납부유예와 같은 세제지원과 내수·소비 활성화 정책[5]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과 내수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산업생태계의 고도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과 통상전략의 전환, 유망제품군의 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국면에서 예상되는 장기 불황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제·사회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해 긴급히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은 기업이 주역이 되고 정부는 조력자로서 적극 협력해야 동력이 가속화되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G밸리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다수[6]를 차지하여 정책의 성패여부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실효성을 느끼고 참여하는 가에 달려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졌다.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기에 전통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공여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G밸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혁신활동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마련과 기업에 대한 금융 및 R&D 지원강화 및 근로형태 변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민관이 협력해 준비한다면 '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G밸리 기업 곳곳으로 스며들 것이 자명할 것이다.

4) 정부는 총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3차, 4차 등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 11조 2,365억원 투입

5) 대표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통해 동행세일 1주일간 비대면 판매 매출은 5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공영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특별행사에서는 30개 상품가운데 21개가 완판, 전통시장은 매출이 7%, 고객은 5%가 증가(중소벤처기업부)

6) G밸리 1단지 전체기업 수는 3,163개사로 이중 300인 미만기업은 99.7%에 달함(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부 2020.9월 입주기업 자료분석)

Ⅲ. G밸리 제조기업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조사

G밸리 제조기업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조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은 비대면(Untact)을 촉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새로운 AD(After Disaster)시대를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학교, 종교 등 많은 일상이 비대면(Untact)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이 봉쇄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스마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근무유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유연하게 가져가는 근무형태를 말하며 미국, 유럽 등은 이미 스마트워크 체제가 50%이상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많은 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러한 근무형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G밸리 1단지 제조기업[7]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Untact) 근무환경 변화 대응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의 근무형태인 비대면 근무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8]이라는 흐름 속에서 구로구 G밸리 기업들의 비대면(Untact)근무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이후 근무환경 변화를 인지하나, 실제 비대면(Untact)근무 시행으로 이행되지 못함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79.5%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인 재택근무, 원격근무, 원격사무실(스마트워크센터)근무를 시행한 여부는 2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7) G밸리 1단지 중소제조기업 1,100개사(회수율 18.6%, 205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업종별, 규모별 층화 후 온라인 및 대면 조사 실시(2020. 9. 8 ~ 10. 30)

8)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고객과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기업문화 풍토를 혁신해 경쟁우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총칭

[표 18]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시대 전환여부

(단위: %)

		그렇다	아니다
전체		79.5	20.5
기업규모	소상공인	77.6	22.4
	중소기업	82.0	18.0

주: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표 19] 비대면(언택트) 근무 시행 여부

(단위: %)

		그렇다	아니다
전체		22.4	77.6
기업규모	소상공인	25.9	74.1
	중소기업	18.0	82.0

주: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시행 중이며, 업무효율(생산성) 측면에서도 대면근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는 G밸리 기업의 근무유형은 재택근무(73.9% 응답)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어 영상회의 또는 화상회의(13.0%), 유연좌석제도(4.3%)을 활용하여 비대면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근무형태는 업무효율(생산성) 측면에서는 대면근무와 비슷하다는 평가(39.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어 비대면 근무형태가 업무효율에 대해 기여가 낮은 평가(32.6%), 긍정적인 평가(28.3%)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대면 근무 시행이 업무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대면근무와 비슷한 것으로 기업이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비대면(언택트) 근무를 위해 활용한 스마트워크 근무유형

(단위: %)

		재택근무	영상·화상 회의	유연좌석제도	이동근무	기타
전체		73.9	13.0	4.3	4.3	4.3
기업규모	소상공인	76.7	6.7	6.7	6.7	3.3
	중소기업	68.8	25.0	0.0	0.0	6.3

주: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표 21] 비대면(언택트) 근무의 업무효율(생산성)향상 도움 정도

(단위: %)

		크게도움 되지않음	도움되지 않음	대면근무와 유사	다소도움
전체		13.0	19.6	39.1	28.3
기업규모	소상공인	16.7	20.0	36.7	26.7
	중소기업	6.3	18.8	43.8	31.3

주: 비대면(언택트)근무를 시행한 응답기업 46개사

비대면(Untact) 근무 시행애로의 주요원인은 제조업의 업무특성

비대면(Untact)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기존 근무형태를 유지 할 수밖에 없는 G밸리 기업은 업무특성상 활용불가(75.5%)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대면중심의 조직문화(7.5%), 자금부담(6.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의 산업특성과 기업규모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제조업의 특성상 필수인원의 비대면(Untact) 관련 근무형태는 생산설비 가동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제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납품해야 하는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과 인력대체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부담이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21] 비대면(언택트) 근무를 활용하지 않는 요인

(단위: %)

		업무특성상 활용불가	대면중심의 조직문화	자금부담	새로운 업무방식 적응애로	원천기업과의 시스템연계 문제
전체		75.5	7.5	6.3	5.7	3.1
기업규모	소상공인	82.6	3.5	5.8	3.5	2.3
	중소기업	67.1	12.3	6.8	8.2	4.1

주: 비대면(언택트)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159개사

대다수 기업은 향후에도 비대면(Untact) 근무나 비대면(Untact)관련 비즈니스모델 활용 계획 없으며, 기업이 비대면(Untact) 근무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의 우선 지원정책 요구 1순위는 자금지원(인프라 구축)

비대면(Untact) 근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1~2년 내에 비대면 근무나 비대면 관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활용 계획이 대다수 없는 것(74.8%)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Untact) 근무의 향후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자금지원(75.6%)[9]이 이어서 고용유지·안정 지원(57.1%), G밸리 기업만을 위한 스마트워크 시스템구축(30.7%)순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지원 정책으로 조사되었다.

9) 조사결과 수치는 응답 1순위 및 2순위 합계

[표 22] 향후 1~2년 이내 비대면(언택트) 근무 시행 및 비즈니스 모델 활용 계획

(단위: %)

		그렇다	아니다
전체		25.2	74.8
기업규모	소상공인	17.4	82.6
	중소기업	34.2	65.8

주: 비대면(언택트)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 159개사

[표 21] 비대면(언택트) 근무 확대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할 지원정책

(단위: %)

		자금지원 (인프라구축)	고용유지·안정지원	G밸리기업 전용 스마트워크센터	대기업과 비대면 기술 협력	비대면 교육지원	기타
전체		51.7	24.9	11.2	6.8	3.9	1.5
기업규모	소상공인	51.7	25.9	12.9	4.3	3.4	1.7
	중소기업	51.7	23.6	9.0	10.1	4.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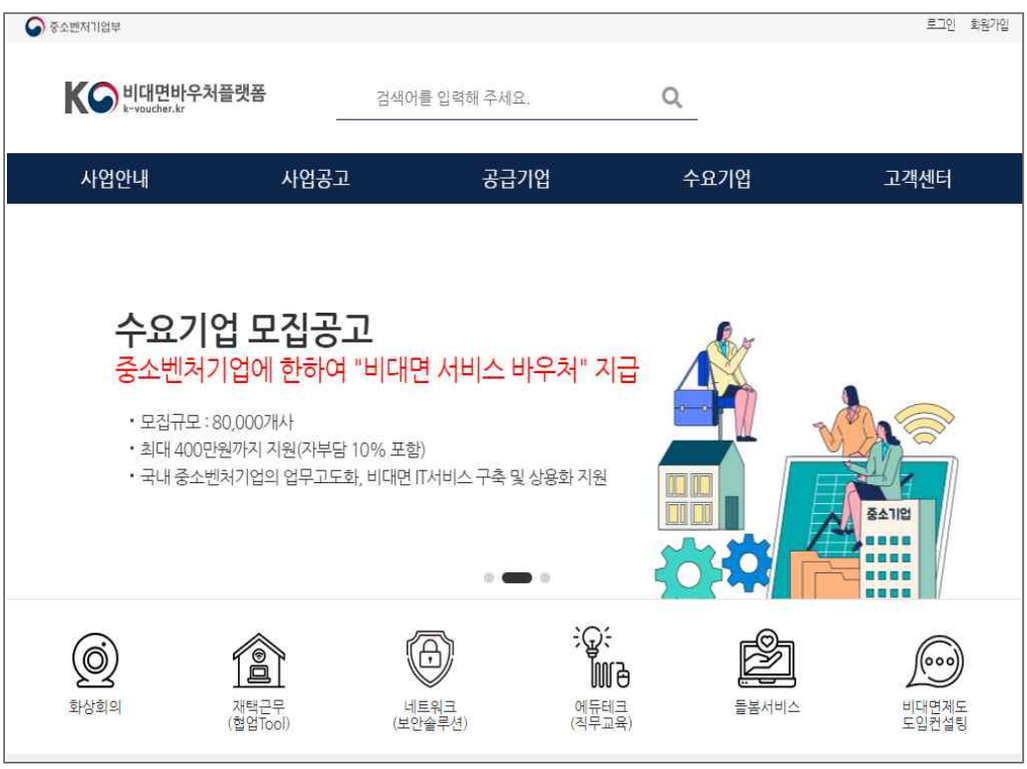
주: G밸리 1단지 제조기업 1,100개사 중 조사에 응답한 205개사

시사점

G밸리기업을 위한 비대면 바우처 사업시행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솔루션 도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솔루션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을 통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하기 원하는 중소·벤처 기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9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로 2020년 8월부터 시작한 모집은 11월에 조기마감[10] 될 정도로 기업들의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이트



최근 보도자료[11]에 따르면 8만개 지원 가능한 사업예산에 최종적으로 10만 1,146개사가 신청하여 그간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근무환경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시스템을 구축 등 예산제약으로 인해 도입을 미루었던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

10)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가능한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을 2020년 8월 19일(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였으나, 많은 기업의 수요 급증으로 11월 23일(월) 현재 조기 마감되었음

11) 중소벤처기업부(2020.11.26.),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수요 몰려, 사업관리 체계 강화·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제시된 비대면 근무의 향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자금지원(75.6%) 응답에 집중된 것을 뒷받침 해준다 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업력 기준으로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은 55,498개(54.9%)로 7년 이상인 기업이 45,585개(4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신청기업의 업종으로는 제조업 비중이 30.7%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29.5%)·경기(26.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기부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것은 제조기업들이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나 영상회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경우 화상회의, 협업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 기간이 종료 된 이후 기업들이 비대면 근무 환경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구로구는 G밸리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생적으로 변화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G밸리기업을 위한 재택근무 적극도입 검토필요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동기는 조직 구성원에게 일과 삶의 균형 유지(Work Life Balance), 일·가정 충실화(Work-Family Enrichment)에 도움을 주어 우수 인력 유치와 유지(이직 의지 감소), 직무 성과 및 생산성 향상, 사기 진작, 직무 만족도 증가, 자율성 증가, 조직 몰입, 무단결근 감소,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는 ICT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ment)의 한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 방식으로서의 재택근무의 효과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 출근 방식의 근무를 하다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생활방식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앞선 연구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도 있다. 많은 재택근무 체험자들이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어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반면에, 혼자 일하는 외로움,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명확한 업무지시, 일과 삶의 균형의 붕괴,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지시,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자기검열에서 오는 스트레스, 가족과 자녀의 업무 방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재택근무가 정착된 기업들은 재택근무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으며 재택근무라는 것이 업무를 넘어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몸에 배는 시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재택근무 도입을 결정한 기업들은 이러한 전환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12)]

12) 이명호, 소프트정책연구소 산업동향(2020)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모색 필요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근무를 통해 업무효율(생산성)측면에서는 대면근무와 비슷하다는 평가(39.1%)가 가장 많았고, 이러한 긍정적 지표와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순기능에 불구하고, G밸리 내 중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행할 유인이 여전히 미약한 수준인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러한 근무환경 변화가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대면 근무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비 및 시스템 관련 비용 등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각종 인력관련 비용 역시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대면 근무의 향후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으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자금지원(51.7%)을 선택한 기업들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자금을 비롯하여 각종 자원이 부족한 G밸리 중소기업들이 정부 및 지방정부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근무를 시행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비대면 근무는 검토 대상이 아닌 이제는 당연한 근무형태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일괄적인 생산체제보다는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 노동인구의 감소,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에 맞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비대면 근무형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구로구와 서울시 및 정부 그리고 기업의 노력이 병행되어질 때 비대면 근무가 일상이 될 날이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GURO 경제 브리프

G밸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적 및 근무환경 변화

- G밸리 제조업 BSI(Business Survey Index)
- 코로나19에 따른 G밸리 기업환경 변화 조사
- G밸리 제조기업 비대면(Untact) 근무활용 조사



구로구

08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Tel. 02-860-2114, 2127~9(120 서울시 응답소로 연결) Fax. 02-864-9595

비매품/무료
93320
9 791191 267006
ISBN 979-11-91267-00-6